



제4회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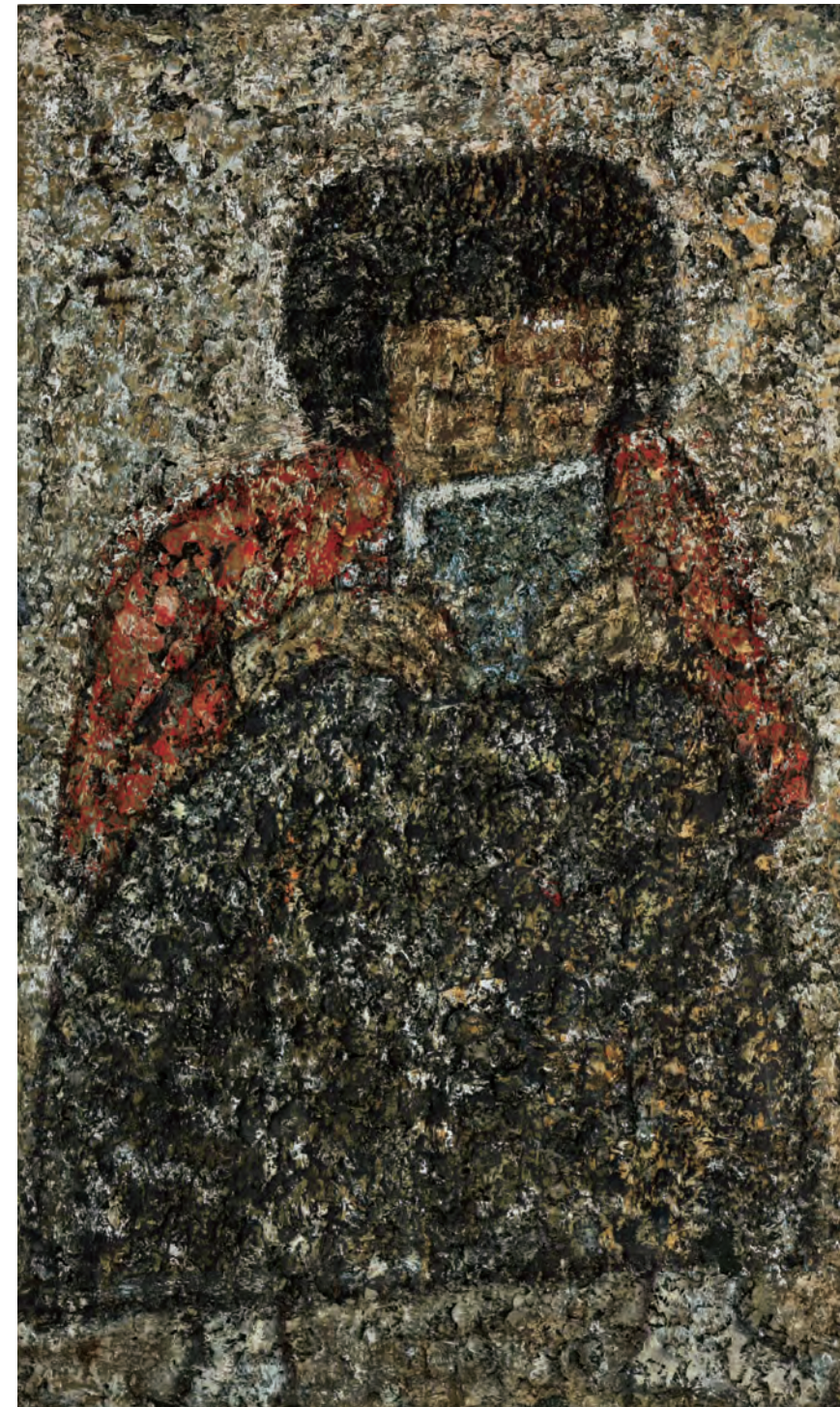
# 학문의 실타래를 풀어놓다

2014. 2. 12. - 2. 26.  
제2도서관 1층 로비



PNU 교수,  
학문의 여러 가닥을 서로 연결하여  
새롭고 더 넓은 학문의 지도를 그리다

전시회 다시보기 도서관 블로그  
<http://lib.pusan.ac.kr/pnublog>



박수근, <독서>, 1950년대





똑똑,  
문을 열다

### COVER STORY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박수근(朴壽根, 1914-1985)은  
독창적인 향토적 색채와 우리 이웃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가장 한국적이고 서민적이며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화가입니다.

소박하면서도 특유의 짙은 감정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책 읽는 사회에서 물어나오는  
저 순수한 기쁨을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는지요?



박수근, <독서>, 1950년대  
히드보드에 유채, 20.1x13cm 그림자공 정려관 현대

#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 CONTENTS

- 04 칼럼 도서관, 공간과 시간의 향기
- 06 특집 사서가 보내는 편지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도서관 홈페이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제2도서관 200% 활용하기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책 읽는 나는 아름답다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김기혁 발행일 2014. 5. 28.  
편집 김수진, 남기홍, 박지영,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free1021@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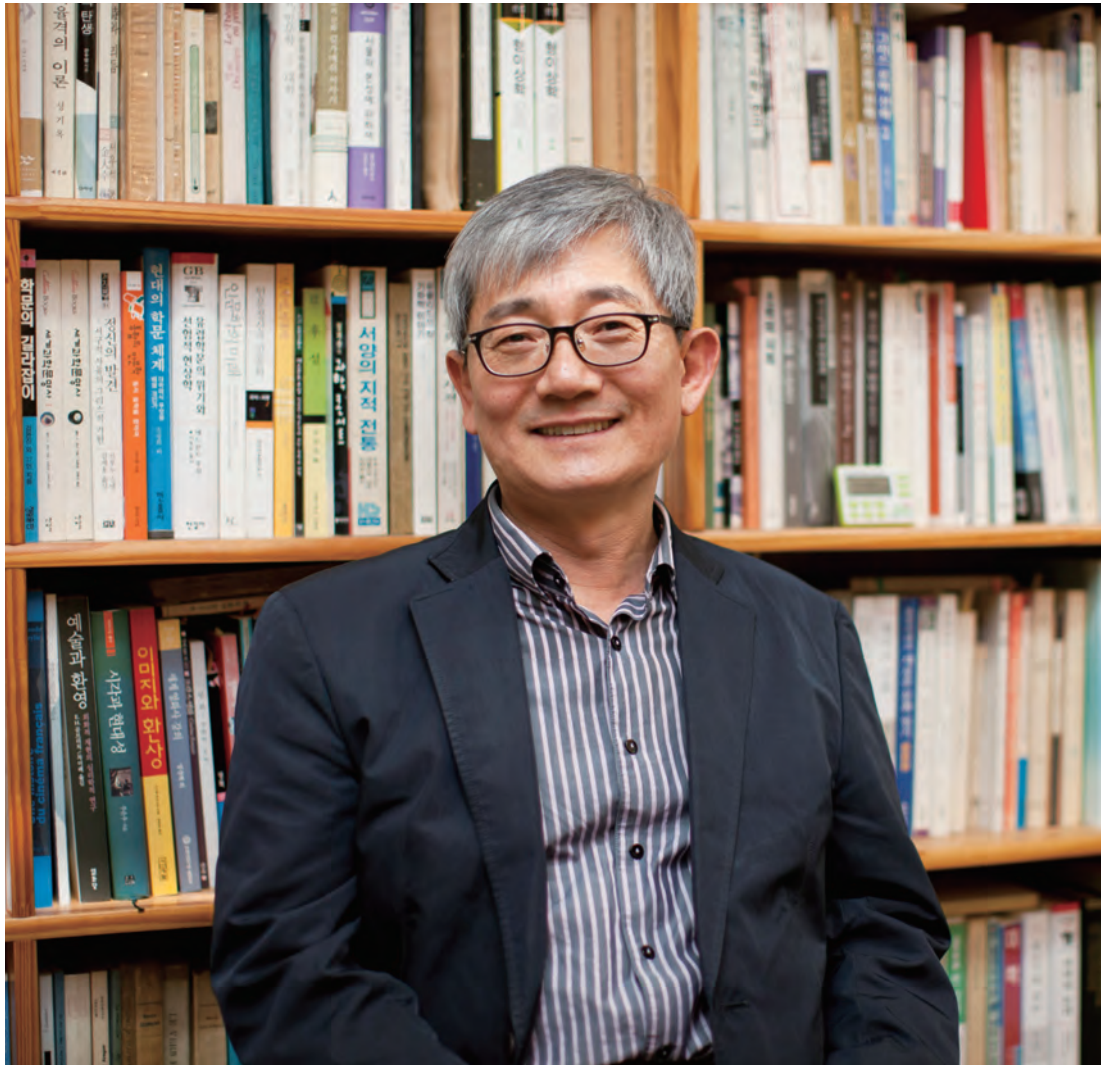
칼럼 | 김종기 불어교육과 교수

# 도서관, 공간과 시간의 향기

조그만 책장과 책상 하나 달랑 놓인 반 평 남짓의 공간이었지만,

조용히 공부하며 논문도 쓰고 번역도 할 수 있는 공간,

나의 학문이 부쩍 부쩍 자리를 잡아간 어머니의 뺨속 같은 공간이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 대륙의 옛 속담이라고 한다. 왜 사라지는 도서관에 비유했을까? 긴 세월 축적된 한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일 테다. 그 옛날 인류 최초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졌던 아프리카 대륙은 인류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라는 DNA가 오롯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매개체를 도서관으로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도서관... 내 청춘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부 시절부터의 기억은 대부분 도서관에 묻어있다. 공부와 약속의 공간, 쉼터, 진리와 정의를 외치던 학생 시위의 발원지... 떠오르는 사건과 얼굴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부 입학 당시 도서관은 지금의 건설관 자리에 있었다. 좁은 열람실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고 시험 때 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이른바 도서관 ‘소요학과’를 자처하며 앞마당에서 놀기도 했고, 바로 옆 개구멍 근처에 많았던 친구들 하숙방을 돌아가며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지만.

70년대 후반으로 기억한다. 지금의 제2도서관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시절 그곳에 가려면 지금은 도로가 되어버린 문창회관 옆 조그만 계곡을 지나야 했다. 대어섯 개 노뿔돌을 밟고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곳이었다. 도서관을 저 꼭대기에 지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다니느냐고, 학교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수군댔다.

복학 후 만난 웅장한 모습의 도서관은 그때로서는 첨단이었다. 그래도 열람실 좌석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졸업정원제로 학생 수는 갑작스레 늘었는데 단과대학 도서관도 없었고, 학생시위가 빈번할 때여서 시험기간 동안 빈 강의실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예비역 3명을 모아 작전을 짰다. 3층 매점의 식탁 하나와 의자를 슬쩍 빼내어 4층 가장 넓은 열람실 구석 빈 공간에 놓은 것이다. ‘특별석’으로 명명하고는 키득거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직원들이

치워버릴까 걱정되어 매일 도서관이 문 닫는 시간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학기 성적이 매우 좋았던 것은 물론이다.

참고열람실의 자료는 열람만 가능했다. ‘미술의 이해’였던가? 교양과목 시간에 배운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보려고, 신문보실 때 쓰시던 아버지의 큰 돋보기를 가져와 들이대며 몇 시간이고 화집을 보았다. 전등 불빛의 반사 때문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가며 그림을 감상하는 나를 보고 품만 엄청 잡는다고 친구들이 놀려대곤 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커다란 화집 몇 권 책장에 놓아두고 가끔씩 뒤적이다.

요즘처럼 놀 거리가 많지 않았던 당시에는 시청각실에서 가끔 상영하는 영화도 도서관이 제공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였다. 어느 해 대통령 기간에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16밀리 영사기와 필름을 빌려와 영화상영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시절 도서관 사서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 몇몇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다. 그 덕분에 외국어와 문화 관련 자료를 찾고 대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유학을 마친 후 시간강사 때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곳도 도서관이었다. 지금처럼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강사연구실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전과 달리 대학원생 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 달 남짓 눈치 보며 구석 자리를 오가다가 학부 때 만났던 사서 한 분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의 배려로 박사과정 학생들이 쓰는 캐럴실 한 칸을 얻을 수 있었다. 조그만 책장과 책상 하나 달랑 놓인 반 평 남짓의 공간이었지만, 조용히 공부하며 논문도 쓰고 번역도 할 수 있는 공간, 나의 학문이 부쩍 부쩍 자리를 잡아간 어머니의 뺨속 같은 공간이었다. 연구실에서 논문과 강의 준비 등으로 바쁠 때 전화가 울리거나 사람들이 찾아와 방해가 되면, 조용히 몰입하여 시간이 정지한 듯 공부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제2도서관 캐럴실은 지금도 그림다. 간혹 그 옆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위를 올려다본다.

플라타너스 우듬지 위로 복도 끝 창문이 저만큼 여전하다.

교수가 된 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들렀다.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왠지 가야할 곳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도서관에 직접 갈일이 많이 없다. 메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항상 안내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직접 갈일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책 등 원하는 대출 자료를 연구실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는 정말 좋다. 동료교수들도 모두 그렇단다. 뿐만 아니다.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옛날 캐럴실을 배려해 주었던 최말희 선생께 전한다. 연구지원서비스라던가 그 명칭은 잘 모르지만, 암튼 일주일 정도면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아서 보내준다. 선행연구 조사나 정보검색뿐 아니라 희귀 자료도 앉아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논문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간혹 들릴 때 이리 저리 둘러보면 도서관이 무슨 고급 카페처럼 보였다. 문하이 전공인 나로서는 도서관의 여러 행사도 눈여겨본다. 신입생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책읽기 장려를 위한 밤샘 캠프, 독후감 공모 등이 참 좋은 행사로 보였다. 학생들이 책을,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까지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묻어 있는 시간은 여태 내게 향기롭다. 밤 퇴근길에 만나는 도서관 건물 전체가 창문의 불빛으로 온통 환하다. 문득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가 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저 창문 안에는 각각의 인생을 멀리까지 비추주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춘들의 한 땀 한 땀 노력들이 또한 영글어 갈 것이다. 도서관은 그래서 우리 대학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이기도 할 것이다. 어느 먼 훗날 저들에게도 이 공간과 시간들은 향기로 우리라.



개교 68주년 기념

# 사서가 보내는 편지



중앙도서관 참고열람실(1974)



도서관 서고(1961)



효원도서관(1956)



도서관 정리실(1975)



열람용 목록카드함(1970년대)



대출반납대(1975)



대출반납대(1986)

## 스무살 효원인,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 비상을 꿈꾸며

장전동 산자락의 아늑한 효원(曉原) 동산에 몸을 담은지도 어언 40여년 가까운 세월이 비껴 지나갔다. 시간적으로는 강산(江山)이 몇 번이나 죽히 바뀌고 변하는 굴레 속에서 부산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등에 업고 오늘까지 달려왔다. 그 옛날 꿈 많은 사회초년생 신참의 활기찬 모습이 이제는 어느덧 중년의 자락에 접어들어 빛바랜 영상으로 나를 바라다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이념과 기능은 고객중심사회로 변화하여 국가,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기업 등의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체제로 변환되어야 한다. 대학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 지식인들이 집중해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과 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금석(試金石)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생명력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하여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대학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도서관은 평생학습 등 다양한 정보의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대학 도서관은 자원과 역할 강화를 통해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기획전산팀장 이남경

인생은 쓰고 나면 다시 재활용 할 수 없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행복함을 맛 볼 수 있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의외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둘러보면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있다.

행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맙게 느끼는 생활 속에서 반성과 깨달음과 자신의 가치관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인생의 진정한 맑음은 스스로에게는 철학이 되고, 타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보면서,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퇴직하신 동료 선배님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물허주 추억속의 시간들이 지나간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반평생 몸담았던 도서관이라는 조직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느껴지는지 새삼 되짚어보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생각하며, 미래의 도서관을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충만한 기운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 학교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거듭 발전해 왔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 준 부산대학교에 무한한 애정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부산대학교의 품을 떠나는 그날까지 비상(飛上)을 꿈꾸며 힘찬 날갯짓과 함께 매일 매일 비워내고 채워가는 연습을 계속하곤 한다.





#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일곱 번째 만남, 법학도서관

## 1 법학도서관은?

법학 분관 개관(1996년 12월)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제2법학관 4, 5층으로 이전, 확장한 법학도서관은 주제전문도서관으로서 법학분야의 학습·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우리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유치되어 법학도서관은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법학 관련 자료 총 97,000여 권과 180여 종의 저널, 3개국 5종의 법률 Web DB를 소장·구독하고 있으며, 444석의 열람석과 판례를 비롯한 각종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용 PC, 학습향상을 위한 6개의 세미나실(스터디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 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자료 선정** 법학분야의 학습·연구·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특성화된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관리
- **법률정보서비스** 국내·외 각종 법령 및 판례 검색, 영문 법령 검색 제공
- **이용자교육** 연구진과 로스쿨 학생들을 위하여 법률정보 활용교육과 법률 Web DB교육 실시
- **정보제공서비스** 선행연구 또는 세미나 발표 준비 등을 위한 학술정보조사, 신간 외국학술지 목차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로스쿨 교수연구 저작물 제공, 법학 학술정보가이드 구축
- **강의지원서비스** 「법률정보조사」 교과목 수업 진행(4주), 교수계획표에 의한 교재, 부교재, 참고문헌 조사·제공

## 법률정보의 길잡이가 되다

도서관은 사람들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해우소'다. 질문으로 가득 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행복으로 여기는 정보전문가, 그들이 바로 사서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일곱 번째 만남. 법학도서관 사서들과 함께한다.

• **대출 / 반납 / 장서관리** 단행본 대출·반납 및 법학도서관 장서 관리 등

## 3 사서로서 가장 보람되거나 힘들었던 경험은?

오늘날 각종 법률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법률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법학전문 사서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 실무에서는 국내 법률·판례만을 참조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의 법률과 판례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데, 법학전문사서에게도 법률문헌 뿐만 아니라 전자자료인 법률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사서로서 보람이 가장 큼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받아 발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졸업생이 취업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도서관을 찾아와 같이 기뻐하고, 사회인으로서 선배라는 자격으로 조언을 해 줄 때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주 성실하게 법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 매년 그 자리에서 똑같은 공부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 4 법학도서관, 앞으로의 모습은?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은 현재 국내 2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학법학도서관 협회회의 회장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법학전문정보센터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법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특히, 로스쿨생이 향후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되었을 때 원하는 법률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상 실무 필수 교과목인 「법률정보조사」의 강의시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범국가적으로 법률정보서비스 협력망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전문 법조인(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2법학관 4층(대출/반납, 단행본, 세미나실)  
5층(연속간행물, 참고자료, 회정문고, 세미나실)  
제1법학관 법학보존서고(311호) / 과제도서실(418호)  
이용 시간 평 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방학중 09:00~18:00  
문 의 051-510-1582-3(4층), 1579(5층)



## 백악관, CNN, 서울시청, 부산대학교도서관 이들의 공통점은?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바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픈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툴인 워드프레스 WordPress를 기반으로 웹사이트가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워드프레스 WordPress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웹사이트 개발도구라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보여줄 정보들을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SNS와 효율적인 연계를 지원한다.

요즘 들어 워드프레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가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며 워드프레스로 리뉴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도 워드프레스를 활용하여 2014년 4월 1일 도서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 도서관 홈페이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1 화면구성은 최신정보 중심으로 와이드하게

- 수업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과별 주제가이드, 신착도서, 블로그 내용을 메인에 배치
- 이용자 반응형(맞춤형)으로 로그인 시 해당 학과 정보에 맞게 주제가이드, 담당사서, 신착도서 제공
- 자주하는 질문(FAQ)을 메인에 배치하여 쉽게 질문하고 해결점을 찾도록 구성
- 최신정보 중심으로 와이드한 모니터(해상도 1280 이상)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

### 2 홈페이지 구조는 블로그를 통합하여 개방·공유형으로

-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픈 CMS툴인 WordPress를 기반으로 제작
- 홈페이지 로그인 시 블로그 댓글 작성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연동 용이

### 3 사용성 향상을 위해 전자자료 검색 기능은 개선하고, 이용 설명은 추가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 논문(article) 검색 가능
- 신입생 및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설명 추가

새롭게 도입한 디스커버리 솔루션(Discovery Solution)은?

우리 대학이 구독하는 모든 전자자료를 한 번에 검색하여, 구독하는 논문의 원문(PDF)까지 바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검색 솔루션입니다. '자료검색 > 전자자료 > 논문검색(e-Article)' 메뉴에서 1억 건 이상의 전자 논문을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손쉽게 이용하도록 멀티브라우저를 지원

- 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등 멀티브라우저 지원
-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화면 제공

###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도서관에서는 개편된 홈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도서관 블로그(댓글)에 남겨주세요.

문의 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17





## 제2도서관,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제2도서관 200% 활용하기

5월 22일 제2도서관이 재개관한지 100일을 맞았다. 37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제2도서관은 지난 2월 12일 새롭게 문을 열며, 하루 평균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

제2도서관 1층은 정보서비스 공간으로, *i*COMMONS와 다목적 오디토리움이 들어섰으며, 제1도서관에 비치했던 취업자료를 이전·확대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취업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로비는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했으며, 장애인 전용 열람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2~4층은 학습·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그룹스터디룸, 박사과정 캐럴실, 쉼터 등이 설치됐다.

어느덧 1학기의 중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회원인들은 제2도서관을 어디까지 이용해 보았을까? 달라진 제2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지금부터 함께한다.

### 1층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COMMONS

- 정보검색 및 동영상 강의 수강용 PC 36대

로그인 화면에서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사용 가능  
1회에 2시간, 1번 연장 가능하며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사용 가능

- 출력 및 복사, 스캔이 가능한 프린팅존

흑백출력용 복합기 2대, 출력 및 복사용 복합기 1대, 컬러출력용 복합기 1대  
흑백출력은 *i*COMMONS 내 모든 PC에서 가능하며, 출력기계에서 카드 등록 후 카드로 결제하여 사용, 컬러출력은 프린팅존 내의 PC에서 가능하며 방법은 동일함

- 최신영화 및 교양 DVD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부스 8개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DVD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DVD 이용대장에 기록한 후 감상



### 1층 다목적 오디토리움

- 이용교육, 세미나 등이 가능한 다목적 오디토리움

동아리모임, 학습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 대여 가능  
사용일 한 달 전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 커뮤니티 ▶ 각종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예약 확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 영화상영 서비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정해진 주제로 무료 영화상영 중, 별도의 신청 없이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여 관람



### 1층~3층 보존서고 자료 대출

- 소장처가 “제2도서관 ○층 보존서고 (대출가능)” 으로 나오는 단행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상세화면의 부가기능에서 **보** 버튼 클릭하여 신청 ▶ 대출승인문자를 수신한 후 1층 *i*COMMONS에서 자료 수령하여 대출처리

- 소장처가 “제2도서관 ○층 보존서고 (열람가능)” 로 나오는 학위논문/연속간행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상세화면의 부가기능에서 **열** 버튼 클릭하여 청구기호 출력, 담당자에게 요청 ▶ 담당자의 확인 후 열람 및 복사 가능

### 1층 취업정보자료실

- 취업정보자료 수험서 및 자격증, 어학 관련자료, 면접가이드 자료 등

취업정보자료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1층 취업정보자료실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 및 복사 가능

- Chinese Corner 중국어 학습 및 중국역사, 문화, 경제, 정치 관련자료 등

Chinese Corner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1층 취업정보자료실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 및 복사 가능

- Window on America 미국 유학, 여행, 미국지도, 미국학 관련자료 등

Window on America 서가에 배열된 자료 중 담당사서에게 문의하여 재고 부수가 있는 경우 무료배포 가능



### 4층 그룹스터디룸 이용하기

- 다양한 규모의 그룹스터디룸(8인실 6개, 10인실 1개, 12인실 1개)

사용일 3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 가능,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 My Library ▶ 시설이용 신청/조회에서 예약

문의 도서관 정보서비스팀 051-510-1303~4

(담당: 사서 장덕수 / 최민영)



- 도서관
- 책을 이야기하다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  
**50**

# 책 읽는 나는 아름답다



## 총류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팟을 만들고 싶은가?  
인문학으로 시작하라  
권태욱(경영학과)

- 01 서가에 꽃힌 책  
헨리 페트로스키 | 지호 | 2001 | 정재교(문헌정보학과)
- 02 신문읽기의 혁명  
손석춘 | 개마고원 | 2003 | 신인철(통계학과)
- 03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신동기 | 티핑포인트 | 2012 | 권태욱(경영학과)

## 사회과학

성공은 '기회'에 '노력'이 더해질 때  
최대치로 끌어올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민정(윤리교육학과)



- 10 세속의 철학자들  
로버트 L. 하일브로너 | 이마고 | 2005 | 신인철(통계학과)
- 11 아웃라이어  
말콤 그래드웰 | 김영사 | 2009 | 조민정(윤리교육학과)
- 12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 열린책들 | 2012 | 신인철(통계학과)
- 13 자본 I  
카를 마르크스 | 길 | 2010 | 이진규(행정학과)
- 14 저탄소 대안 경제론  
김해창 | 미세움 | 2013 | 팽성우(경영학과)

## 어학

기적의 문자,  
한글에 감동받아라  
백미진(국어국문학과)



- 15 한글의 탄생  
노마 히데키 | 돌베게 | 2011 | 백미진(국어국문학과)

2014년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효원인이 추천하는 책으로

'마음의 서재'를 차곡차곡 채워보세요.

책 읽는 당신에게서 깊은 향기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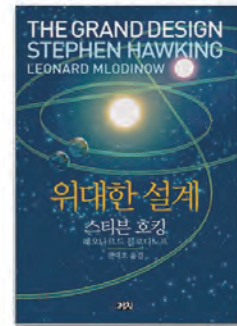


## 철학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행복과 가치 있는 순간이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고민들을 돌아본다  
안솔잎(문헌정보학과)

- 04 나라서 참 다행이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 북폴리오 | 2010 | 권명숙(식품영양학과)
- 05 두개의 별 두개의 지도  
고미숙 | 북드라망 | 2013 | 박연주(문헌정보학과)
- 06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두 크라슈나무르티 | 물병자리 | 2002 | 김해수(무역학부)
- 07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 김영사 | 2010 | 김의중(문헌정보학과)
- 08 철학자와 늑대  
마크롤랜드 | 추수밭 | 2012 | 안솔잎(문헌정보학과)
- 09 보이지 않는 고릴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대니얼 사이먼스 | 김영사 | 2011 | 오보람(문헌정보학과)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부산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공모하여, 우수 추천서  
5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추천서 원본은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과학

위대한 우리 우주,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경탄하게 된다 박경옥(사학과)

- 16 위대한 설계  
스티븐 호킹, 레오나르드 몰로디노프 | 까치글방 | 2010  
박경옥(사학과)

## 문학

산다는 건,  
순간순간 세상과 더욱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건 아닐까 김해수(무역학부)



- 20 가능성의 발견  
아마나카신야 외 | 북하우스 | 2013 | 황휘현(물리학과)
- 21 가시고기  
조창인 | 밝은세상 | 2000 | 김의중(문헌정보학과)
- 22 갈매기의 꿈  
리처드 파크 | 현문미디어 | 2006 | 정세준(아동가족학과)
- 23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 문학동네 | 2008 | 박연주(문헌정보학과)
- 24 공중그네  
오쿠다 히데오 | 은행나무 | 2011 | 김민지(미생물학과)
- 25 그 여자의 자살편지  
케르스틴 기어 | 들녘 | 2011 | 손애라(교육학과)
- 26 그럴 때도 있다  
김현정 | SOMO | 2013 | 양유지(특수교육학과)
- 27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 문학동네 | 2013 | 허정애(식품영양학과)
- 28 내 생애 단 한번  
장영희 | 섀터 | 2000 | 김해수(무역학부)
- 29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 오픈하우스 | 2008 | 손애라(교육학과)
- 30 님털 같은 나날  
류전원 | 밀리언하우스 | 2011 | 김근희(식품영양학과)
- 31 마음  
나쓰메 소세키 | 문예 | 2002 | 이은빈(경제학과)
- 32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김수영 | 웅진지식하우스 | 2010 | 배진경(문헌정보학과)
- 33 별을 스치는 바람  
이정명 | 은행나무 | 2012 | 이미경(문헌정보학과)
- 34 빅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 밝은세상 | 2010 | 민지은(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예술

옆에서는 단원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고,  
앞에서는 조선이 펼쳐진다  
권명숙(식품영양학과)

- 17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오주석 | 숲 | 2003 | 권명숙(식품영양학과)
- 18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왕주 | 효형출판 | 2005 | 배진경(문헌정보학과)
- 19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박홍규 | 아트북스 | 2003 | 박경옥(사학과)



## 역사

조선시대 일기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안유민(문헌정보학과)

- 45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문숙자 | 너머북스 | 2009 | 안유민(문헌정보학과)
- 46 고양이 대학살  
로버트 단턴 | 문학과지성사 | 1996 | 오보람(문헌정보학과)
- 47 곰브리치 세계사  
에른스트 곰브리치 | 비룡소 | 2010 | 백지혜(경영학과)
- 48 단군, 만들어진 신화  
송호정 | 산치림 | 2004 | 박경옥(사학과)
- 49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비평사 | 1999 | 조민정(윤리교육학과)
- 50 중세의 뒷골목 풍경  
양태자 | 이랑 | 2011 | 이미경(문헌정보학과)

나만 모르고 다 안다?



## 2014년 새로워진 도서관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즐긴다

책, 즐겁게 듣자!

### ‘귀로 읽는’ 오디오북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올해 초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64종의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다. 오디오북이란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전문 성우의 녹음과 효과음으로 만든 음성 파일로 스마트폰, PC, MP3, PMP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다. PC에서 이용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 자료검색 ▶ 전자자료 ▶ e-Book ▶ 한술오디오북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오디오북 페이지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등록’을 한 후 마켓에 접속해 ‘오디언도서관’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이용방법은 도서관 블로그 참조). 이 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대출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평소 읽고 싶은 책을 들을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바쁜 직장인이나 도서관을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1399  
기획전산팀 051-510-1832

audio  
book 한술  
오디오북



표절방지프로그램

### 턴잇인(Turnitin) 도입



도서관에서는 2014년도부터 학술논문 표절방지 프로그램인 턴잇인(Turnitin)을 도입해 서비스하고 있다. 턴잇인은 논문 및 과제에 대한 표절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120억 건의 웹페이지와 2,900만 건 이상의 학술저널을 턴잇인을 통해 제출한 과제와 논문을 실시간 비교하여, 사전에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이상 연구진이면 이용 가능하며, 턴잇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산대학교 메일로 회원가입하면 이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작성한 논문 파일을 턴잇인 계정에 올리고 나면 기존 자료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한 눈에 보여준다.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 색깔로 표시되고 비교 대상과의 일치 정도가 %로 수치화돼 나타난다. 왼쪽 화면에는 본인이 쓴 논문이, 오른쪽 화면에는 기존 자료 출처가 표시되며 표절 여부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 11,000여 기관에서 턴잇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표절을 예방하고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도서관 인문사회팀 051-510-1863

잡지, 이젠 스마트하게 보자!

### 모아진(Moazine) 전자잡지 모바일 서비스



올해 2월부터 국내 전자잡지인 ‘모아진’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통해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아진’ 전자잡지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분야별 신간 및 과월호 잡지 200여종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경우, ‘도서관 매거진’ 앱 다운로드 ▶ 앱 실행(잡지명/카테고리 검색) ▶ 잡지 선택 후 다운로드(교내 WIFI 설정) ▶ ‘내서재’에서 확인 후 이용(7일간 보관) 하면 된다. 잡지 목록 확인 및 다운로드에는 교내에서만 가능하며, 다운로드 후에는 교내·외 어디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1804  
기획전산팀 051-510-1832

참고문헌관리도구

### ProQuest Flow 제공

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참고문헌관리도구인 ProQuest Flow를 제공하고 있다. ProQuest Flow란 참고문헌을 수집, 이용, 공유, 인용하는 도구이다. 텍스트 PDF 파일 뿐만 아니라 30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 및 원문 반입이 가능하며, PDF와 레퍼런스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연구자와 자료 공유도 가능하며, 3,000여종의 학술지 참고문헌 스타일을 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Flow for Word’ 기능을 이용하면 논문 작성 시 참고문헌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ProQuest Flo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 학습연구지원 ▶ 논문작성가이드 ▶ ProQuest Flow 참조.

문의 | 도서관 인문사회팀 051-510-1863



## 고맙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예순 여덟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946 - 2014

그 시간을 ‘함께’ 걸어오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실어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